

눈길 끄는 특·특·행·정

# 오지마을 찾아가는 영농상담

### 곡성군 10월까지 순회...농기계 수리도

곡성군이 오는 10월 말까지 오지마을 농업인들에게 영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영농상담실'을 운영한다. 곡성군은 지역 오지마을 10곳을 선정해 영농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영농상담뿐만 아니라 고장난 농기계 수리 및 현장 실무교육도 함께 진행돼 농업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 오지마을은 교통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먼 곳이 많아 일반적인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군에서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찾아가는 영농상담실의 일정을 미리 안내하고 농업인들이 필요한 서비스와 요청사항을 사전에 파악해 준비한다. 이후 당일 이 되면 영농상담을 담당할 직원 2명과 농기계 수리 및 교육을 담당할 직원 2명, 총 4명으로 구성된 팀이 해당 마을을 방문하여 농업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장에서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작목 전문지도사나 농기계 교관이 별도의 일정을 설정해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러한 세심한 관리와 지원으로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곡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오지마을까지 소외되지 않도록 영농현장에서 농업인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찾아가는 영농상담실이 농업인들의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고, 현장 중심의 농촌지도사업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 어르신들 찾아가는 안전교육

### 구례군 65세 이상 '남도안전학당' 운영

구례군이 오는 12월까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 '남도안전학당'을 운영한다. 〈사진〉 '남도안전학당'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어르신들의 안전 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방지 대책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안전 강화 사업이다.

구례군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노화에 따른 운동 능력 변화와 생활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전남도에서 위촉된 전문 강사 4명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135개소를 방문하여 어르신들이 생활 속에서 마주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한다.

교육 내용은 교통안전(전동차 안전, 보행 안전, 안전운전 수칙 등), 생활안전(화재 및 지진 발생 시 대피 방법, 소화기 사용법 등)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구례군은 추석을 앞두고 군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023년 추석 명절 대비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관광객과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각종 위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며 "지역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여수산단에 소방 첨단장비 대용량포방사 체계 구축한다

### 여주시 중앙119구조본부와 협약 2026년까지 200억원 투입 설치

여수국가산단이 200억원 규모 소방 첨단장비인 '대용량포방사 체계'를 구축한다. 여주시는 최근 중앙119구조본부와 '호남권역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도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은 '대용량포방사시스템' 사업 터를 확보하고 행정 지원에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용량포방사 체계는 오는 2026까지 산단에 구축된다.

이는 분당 4만5000 l를 최장 130m까지 방수할 수 있는 대규모 첨단장비다. 지난 2018년 10월 경기 고양시 유류 탱크 화재 후속 조치로 나온 대용량포방사 체계는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 처음 도입된 운영 중이다.

방수 용량은 대형 펌프차(분당 2800 l)의 16배가 넘는다. 또 집중 호우 때는 수증 펌프로 활용해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곳은 포소화액 탱크차, 펌프차, 이송차 등 10여 대의 차량을 갖추고, 소방관 50여 명의 인력을 운용한다.



여주시(시장 정기명·오른쪽 네번째)가 중앙119구조본부와 최근 여수국가산단에 '호남권역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여주시 제공>

여수산단은 500만 l 이상 위험물 옥의 저장 탱크를 398기를 보유하고 있다. 대형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화악고'라는 오명을 안았다.

여주시는 호남권역 대용량포방사 체계를 구축해 여수산단을 비롯한 호남권 사업장의 산업 안전 확보와 화재·산불·수해 등 다양한 재난대응 체계

를 마련할 방침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정부 사업인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도입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사항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여수 국가산단 대형 화재사고 등에 총력 대응해 '안전한 여수시'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광양농협 농업인 추석맞이 생필품 꾸러미 지원

### 광양농협이 추석맞이 생필품 꾸러미 3500개를 전했다.

생필품 꾸러미는 마른 멸치와 부침가루, 캐놀라유, 당면 등 5가지로 구성됐다.

허순구 광양농협 조합장과 임직원들은 산지유통센터에서 생필품 꾸러미를 포장하고 직접 마을을 찾아 선물을 전했다.

광양농협은 지역 농업인에게 명절 생필품 꾸러미 전달과 건강검진, 해외연수, 장수 사진·돋보기 지원, 보양식 대접, 영농자재 지원 등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허 조합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업인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선물하기 위해 정성을 담아 행복나눔 생필품 꾸러미를 준비했다"며 "정성껏 준비한 행복나눔 꾸러미로 가족들과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허순구(맨 오른쪽) 광양농협 조합장이 지역 농업인들을 찾아 행복나눔 생필품 꾸러미를 전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 보성군, 수도권계량기 50% '스마트 원격검침' 전환

보성군은 올 연말까지 관내 수도계량기 50%를 '스마트 원격검침 계량기'로 전환한다.

스마트 원격검침 계량기는 수도계량기에 원격 검침 단말기를 설치하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검침 값을 전송하는 무인 자동 검침 방식이다.

현재 보성군 상수도 계량기는 1만1260개로, 한 달에 한 번씩 검침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검침하고 있다.

스마트 원격검침을 도입하면 검침원의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검침할 수 있고 수도물 사용 패턴, 실시간 사용량도 확인할 수 있다.

직접 검침 시 일어날 수 있는 낙상·개 물림·맨홀 내 질식 등의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유대수조기 감지, 독거세대 알람 경보 등 사회적 안전망과 연계한 서비스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그동안 수도계량기는 단순히 요금 징수를 위한 장치에 불과했으나, 원격검침 계량기로의 전환을 통해 향후 새로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일부 지역에만 원격검침 계량기가 설치돼 있지만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 순천시 승주 바이오 지식센터 2025년 착공

### 설계공모 현장 설명회...320억원 들여 9996㎡ 규모 건립



'남해안벨트 바이오산업 중심도시'를 내건 순천시 오는 2025년 상반기 승주 바이오 지식산업센터를 착공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15일 옛 승주다목적체육관에서 '생물전환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승주 바이오 지식산업센터) 설계공모 현장 설명회를 열었다. 〈사진〉 설명회에는 32개 신청 업체 가운데 22곳이 참여했다. 승주 바이오 지식산업센터는 총사업비 320억원을 들여 지상 4층 연면적 9996㎡ 규모로 건립된다. 30여 개 기업 입주공간과 기업 상담실, 회의실 등 지원시설 공간이 들어선다.

순천시는 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 대상지 현장 여건을 설명하고, 사업 개요·설계 지침 등을 공개했다. 업체들의 질문에 답한 뒤 승주읍의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설계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센터 착공은 오는 2025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설계공모 응모작은 오는 12월4일까지 받는다. 같은 달 13일 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를 15일에 발표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설계공모에서 지역에 활력이 될 수 있는 바이오산업의 표준디자인 성장모델을 제안하길 바란다"며 "승주 지역 정체성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 상징물이 될 수 있는 디자인과 공간구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한국생활개선 여수시연합회(회장 이강심·왼쪽 네번째)가 소라면(면장 정용길·왼쪽 5번째)에 후원물품을 전하고 있다.

# '광양관광 활성화 포럼'...천만 관광도시 도약 방안 모색

### 오늘 광양시청...100여명 참석

광양시가 민선 8기 '지속 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 비전을 실현하고 천만 관광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광양시는 19일 오후 1시 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역사와 관광을 접목하고 미래도시를 견인할 광양 관광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양시관광협의회 주관으로 열리는 포럼은 관광 분야 전문가 및 종사자, 시민,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관광 활성화 전략을 고민한다.

정유재란 저자 안영배의 '역사와 관광 접목 방안'에 대한 주제 발제에 이어 박강섭 전 청와대 관광진흥비서관을 좌장으로, 임영찬 한국해양문화관광산업연구원, 홍봉기 광양학연구소장, 이은수 광주대 교수, 나종년 전남문화관광해설사 등 토론

이 펼쳐진다.

이귀식 광양시관광협의회회장은 "포럼을 통해 관광 육성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과 민관협력방안 등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관광 활성화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여수 생활개선연합회 실습 제품 취약계층 전달

### 지난달부터 다섯차례 과제교육

한국생활개선 여수시연합회는 최근 총회를 열고 지난달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과제교육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총회와 과제교육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촌체험 학습장에서 열렸다. 범인숙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과장, 양수정 팀장, 이강심 여수시 생활개선연합회회장과 회원 30명이 총회와 교육에 참

여했다.

회원들은 주명자 강사의 실습 교육을 받고 만든 수세미, 수건 등을 소라면 취약계층 25가구에 전달했다.

이강심 회장은 "이번 과제교육은 회원들과 단합을 도모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일회적 행사가 그치지 않고 다양한 활동으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